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스무살 BIFAN 다시 태어나다

정지영 조직위원장, 최용배 집행위원장
김영덕, 김세윤, 유지선 프로그래머



2016.07.21
THU

01

시네마



CULTUREPLEX CGV

세계가 함께 즐깁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화관으로 사랑 받은 컬처플렉스 CGV,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터키 등
CGV만의 즐거움과 감동을 세계 곳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Meet the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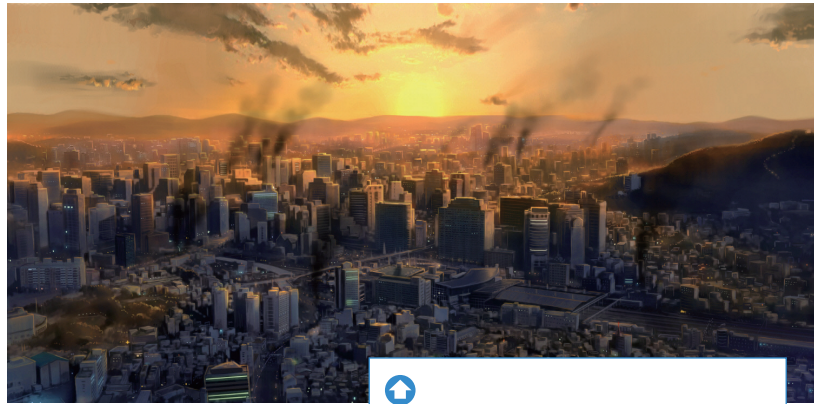
ほろよい

— 호로요이 —

BIFAN BOARD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4 ————— 5



주의! 속출하는 매진 경보

올해 20회를 맞이한 BIFAN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서둘러 예매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7월14일부터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이후, 개막작 <캡틴 판타스틱>을 포함한 100여 편 이상의 상영작이 매진되었다. 폐막작인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 또한 온라인 예매는 이미 매진이니 현장에서 예매 또는 발권을 해야 한다. 온라인 예매 매진 작의 경우, 해당 영화 상영 당일만 현장 예매가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풍성한 행사와 함께

BIFAN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빼놓을 수 없다. 개막전 사전 행사로 7월16부터 진행되는 '밴드 황정만'과 유정식, 나윤권의 공연이 있으며 주말에는 슈퍼키드와 로맨틱펀치의 황당무개 콘서트와 데이빗 보위 헌정 공연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영화제 공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거리 공연과 참여 이벤트들이 있으니 카달로그와 영화제 홈페이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자.



레드카펫의 스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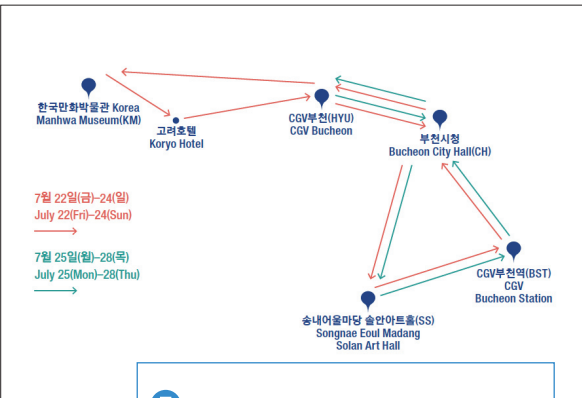
개막식에 앞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영화계의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석한다. 배우 안성기와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배우 강수연, 그리고 한국 영화계의 전설 임권택 감독과 <곡성>으로 최고의 한해를 보낸 나홍진 감독, '부천 초이스'장편 부문의 심사위원인 배우 장미희와 정진영, 칸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크리스티앙 쥘느 또한 레드카펫을 밟는다. 그 외에도 배우 이솜, 강예원, 박규리, 이상윤, 방승인 파비아, 가수 브라이언 등이 참석하여 레드카펫을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드디어 개막

7월21일 목요일,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한다.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내외 300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식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오후 8시부터 배우 박성웅과 스테파니 리의 사회로 진행된다. 9시부터는 맷로스 감독의 유쾌한 가족 코미디 <캡틴 판타스틱>이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영화제는 31일까지 11일간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발 빠른 셔틀버스

영화제 일정에 따른 셔틀버스 노선과 시간을 체크하자. 7월22일부터 24일까지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출발해 고려호텔, CGV부천, 부천시청, 송내어울마당(솔아트홀), CGV부천역, 부천시청, CGV부천, 한국만화박물관으로, 7월25일부터 28일까지는 CGV부천에서 출발해 부천시청, 송내어울마당(솔아트홀), CGV부천역, 부천시청, CGV부천까지 운영된다.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정기노선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부천 찍고 시체스까지!

시네필들을 위한 희소식! 부천 상영작 세편 이상을 보면 당신도 시체스 영화제에 갈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협찬사 투어버킷에서 2016년 시체스영화제 기간의 바르셀로나 왕복 항공권과 시체스 호텔 4박, 1억원 여행자보험을 지원한다. 안내데스크에서 영화제 티켓 3매에 도장을 찍고 응모권을 받아 투어버킷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BIFAN 영화보고
스페인 시체스 가자!**

2016.7.21

EVENT

19:00 레드 카펫 행사
부천시청 잔디광장
20:00 개막식
부천시청 잔디광장
21:00 개막작 상영
<캡틴 판타스틱>

표지사진 오계욱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객원기자 김수빈 김은솔 이호준
사진 오계욱 권영량
디자인 김은 김지원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구독문의
1566-9595



캡틴 판타스틱

CAPTAIN FANTASTIC

맷 로스 | 미국 | 2016년 | 118분 | 개막작

[대안적 삶과 교육의 이면을
분방한 로드무비 스타일로
보여준다. 개인과 가족, 인생과
죽음에 대한 낯설지만
귀 기울여 볼만한 제안.](#)

현재도 자연에 안주하는 삶은 가능한 것일까. 벤(비고 모르텐슨)은 깊은 숲속에서 여섯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아이들은 벤의 홈스쿨링으로 공교육을 대신한다. 사냥과 채집은 물론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와 헌법, 철학에까지 정통하다. 하지만 벤과 아이들의 가슴 한구석엔 아내와 어머니의 빈자리가 늘 남겨져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은 어머니의 부고를 듣는다. 벤과 아이들은 아내의,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시로의 여정을 떠난다. 줄곧 자신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세계에서만 살던 아이들은 낯선 자국에 쉽게 흔들리고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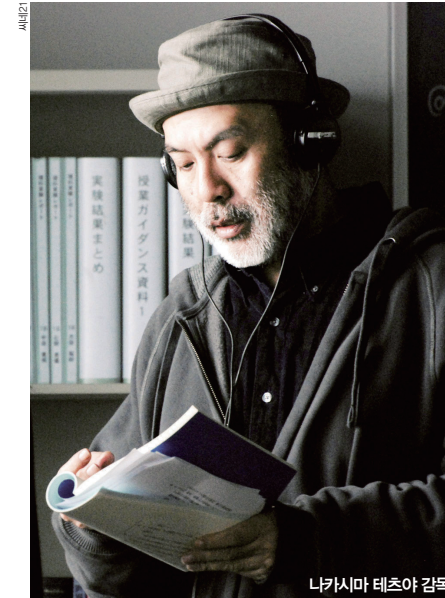
음을 뺏긴다. 미지의 것들로 가득한 도시는 쉽잖아 아이들을 매혹한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벤과 아이들은 사슴을 사냥한다. 당황스러운 정도로 여과없는 그 장면은 전통적 질서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벤 가족의 생존 방식을 관객에게 주지시킨다. 거침없고 야생적이지만 이 가족에겐 길들지 않은 솔직함과 견고한 가족애가 있다. 어려운 길을 택한 아버지를 연기하는 비고 모르텐슨의 모습은 실제 자신의 역경 많았던 삶과 특유의 그늘진 얼굴이 함께 영커 특별한 현실감을 선사한다. 여섯 아이들을 연기한 각 배우들도 매우 명민하다. 이 가족이 그들만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은 손에 꼽을만큼 정겹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지극하게 아름답다. <예언자>(2009) <러스트 앤 본>(2012)의 촬영감독 슈테판 폰텐이 고즈넉하거나 치열한 이들 가족의 시간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서정 가득한 음악은 그룹 시규어 로스의 비주얼 아티스트였던 알렉스 소머스가 맡았다. 뜻밖의 결말에 닿는 순간에 영화는 가족을 완성하는 것, 남들과 다른 삶을 선택해 건강히 그 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낯설지만 수용할 만한 일깨움을 준다. 몸과 정신 모두가 건강한 삶, 잘 죽는 법에 대해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유효할 작품. 올해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윤혜지



부천을 찾는 게스트...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
배우 쉬 정, 히로세 스즈 등

판타스틱한 만남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



배우 안느 빠리요

영화제가 특별한 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상영작 라인업 때문만이 아니다. 동경하는 영화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또한 영화제에 발걸음 하는 중요한 이유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는 국내외 관객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영화인들이 다수 방문할 예정이다. 작년의 소노 시온 감독에 이어 올해 특별전의 주인공은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이다.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2006)부터 <고백>(2010)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펼쳐 온 거장의 방문 소식에 감독이 참여하는 GV는 벌써부터 매진 행렬이다.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에서 속 깊은 막내 역할로 인상을 남긴 히로세 스즈는 신작 <치하야후루>(2016) 시리즈로 부천을 찾는다. 연출을 맡은 고이즈미 노리히코 감독도 동행한다. <니키타>(1990)로 스타덤에 오른 프랑스 출신 배우 안느 빠리요는 '고동: 영화의 탄생과 함께한 120년' 특별전 참석을 위해 부천을 찾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 겸 배우 쉬 정은 자신의 인장을 깊게 새긴 코미디 <로스트 인 홍콩>(2015)을 선보인다. 두편의 <도성풍운> 시리즈를 연출한 왕정 감독과 출연 배우 미셸 후도 중화권에서 온 손님이다. 조금은 색다른 타이틀로 부천을 찾는 영화 인도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단골손님이자 개성 강한 공포물을 선보여온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 인도네시아 영화계의 대표 주자 조코

안와르 감독은 각각 환상영화학교 멘토와 NAFF 심사위원 자격으로 부천을 방문한다. 국내 게스트 리스트에도 반가운 얼굴이 가득하다. 상반기 최고 화제작 <곡성>(2016)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은 초기작 <한>(2007)을 포함해 총 세편의 상영작을 들고 관객들과 만난다. 장준환 감독은 특별전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 상영작으로 꼽힌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2003)로 부천을 찾는다. 배우 장근석은 감독의 이름으로 관객들 앞에 나선다. 그가 연출한 9분짜리 단편 <위대한유산>(2016)은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섹션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스크린 속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기회도 마련된다. <날, 보러와요>(2016)의 강예원, <어떻게 헤어질까>(2016)의 박규리와 서준영, <굿 맨>(2016)의 공형진, <중독노래방>(2016)의 이문식, 단편 <심야택시>(2015)의 권해효, 심은진 등이 영화제 참석을 확정했다. GV 모더레이터를 맡은 게스트도 면면이 화려하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영화평론가 허지웅, 영화감독 임필성, 가수 윤종신, 셰프 박준우 등이 관객들의 즐거운 영화 감상을 돕기 위해 끼여 부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수빈 객원기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정지영 조직위원장, 최용배 집행위원장

스무살 BIFAN, 다시 태어나다

20회를 맞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부천영화제)에 새신의 바람이 크게 불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인으로서의 최초로 영화제 조직위원장에 임명됐고, 청어람 최용배 대표는 집행위원장을 맡아 영화제 살림을 이끌게 됐다. <남부군>(1990) 때 감독과 연출부로 만나 함께 일한 뒤로 26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번 부천영화제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의 호흡을 기대해도 좋겠다.

새로 출범한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르겠다.

정지영 판은 최용배 집행위원장이 다 정리했고 난 거기 손가락만 적당히 걸쳤다. 덤벼거리는 나와는 달리 최 위원장이 아주 꼼꼼한 사람이라 내가 뭘 더 할 필요가 없더라. (웃음) 조직위원장으로 와서 정관을 살펴보니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 집행위원장이네 책임에 비해 권리가 없더라. 실무를 맡는 만큼 사안에 대한 결정권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조직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관계를 조율하는 부분이다. 지자체와 영화인들간의 관계, 다른 문화예술계와 영화제와의 관계, 영화제와 관객과의 관계 말이다. 집행위원장과 잘 맞춰가면서 영화제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최용배 영화인들이 꼭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 정지영 감독님이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뒤 확실히 섭외가 편해졌다. 전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영화제에 참여해 달라고 여러가지로 설득이 필요했는데 이젠 '정지영 감독님께서 조직위원장 되신 거 아시죠?' 한 마디면 되더라. (웃음)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영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좋은 변화라 생각한다.

각자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올해의 프로그램은 뭔가.

정지영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과 '베스트 오브 아시아'다. '시간을 달리는 BIFAN'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올해 부천영화제에 무척 의미가 있는 섹션이다.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흥행작을 통해 그 나라 대중들의 관심사와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섹션이다.

최용배 나는 '코리아 판타스틱: 장편'을 거론하고 싶다. 이 섹션이 해외 게스트들에게 믿을 만한 한국영화들이 많다는 걸 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포부라면, 부천영화제의 코리아 판타스틱 부문이 국내 영화인들에게 의미있는 위상을 차지했으면 한다. 영화인들이 꼭 한 번 작품을 출품하고 싶어 하는 섹션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부천영화제는 어떻게 바뀌어갈까.

정지영 잘되겠지. (웃음)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은 단단한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가 바뀌더라도 그 기반 위에서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만들어 두고 싶다.

최용배 이번에 프로그래머의 능력과 상영작의 위력에 두 번 놀랐다. 예매 현황을 보니 프로그래머와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영화제로 부천영화제를 잘 꾸려가고 싶다.

개막식을 하루 앞둔 소감이 어떤가.

정지영 인삿말은 간단히 할 거다. 뭘 많이 하겠다고 하면 그게 다 내 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 (웃음) 설레는 건 잘 모르겠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다.

최용배 함께 영화제를 만들어 온 스태프들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글 윤혜지 · 사진 오계욱



김영덕, 김세윤, 유지선 프로그래머

부천에서만 볼 수 있는 ‘판타스틱’한 영화가 있다

글 송경원 · 사진 권영탁

이렇게 사이좋은 프로그래머들도 드물 것 같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업무 특성 상 각자의 영역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부천영화제)를 이끌고 있는 김영덕, 김세윤, 유지선 3인의 프로그래머는 유난히 팀플레이가 돋보인다.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20회에 어울리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3인의 프로그래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사다난했던 준비가 마무리되고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다. 기분이 어떤가.

김세윤 처음 프로그래머를 맡아서 사실 아직 실감이 가지 않는다. 확실한 건 정신없다는 거다. (웃음) 늘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던 쪽에 있다가 고르고 소개하는 위치에 처음 서 보니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이 궁금하다.

김영덕 부천영화제 초기에 활동하다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다. 예전보다 규모가 한층 커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200편 남짓의 영화를 소화해야 할 규모의 스텝들이 모여 320편이 넘는 작품들을 관리하려다보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단 예매율은 잘 나오고 있다. 스태프들이 피땀 흘린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다행이다.

유지선 10회 영화제 때 프로그램팀에 처음 합류 했었다. 이번에 20회를 맞이하니 그 때가 생각난다. 뒷자리에 00이 끼면 힘든 것 같다. (웃음) 올해는 프로그램 섹션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다. 담당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화권 영화들에 대한 강화가 두드러졌다. 워낙 사이즈가 커서 객원 프로그래머도 영입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짧게 설명 부탁드린다.

유지선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규모가 커져 중화권은 주정현, 홍콩대만은 김철수, 동남아시아는 파울로 버틀린 객원 프로그래머의 서포트를 받았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목적, 경험, 발견의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한다. 발굴과 탐색은 '부천초이스'섹션에서 주력하고, 전체적으로는 관객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최대한 선보이려 한다. 오래 하다 보니 무의

식적으로 잘 될 영화들에 먼저 손이 가더라. (웃음)

김세윤 단편과 중남미 지역을 맡았고 미주 유럽 지역 일부를 서포트 했다. 담당을 나눌 때 단편이 쉽지 않을까 하는 얇은 생각으로 쉽게 시작했는데, 다들 왜 안 말하려 하는지 알게 됐다. (웃음)

김영덕 정말 고생하셨다. 거의 작은 단편영화제를 하나를 꾸렸다고 봐도 된다. 내가 미주 유럽 담당이었는데 챙겨야 할 대외 행사가 많아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김세윤 프로그래머가 많이 도와줬다.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대외협력, 홍보 담당이시다. (웃음)

김세윤 영화제에서는 아무래도 장편 홍보에 힘을 쏟기 마련이니 되도록 좋은 단편을 많이 홍보하고 싶다. 해외 단편들을 맡았는데 정말 색깔 있고 잘 만든 작품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새삼 다시 배웠다.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면 영감과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천 초이스:단편2'의 <어니 비스킷>은 필견이다. 가능하면 모든 단편을 다 추천하고 싶다. (웃음)

월드 판타스틱 레드, 월드 판타스틱 블루, 패밀리 존 등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20회를 맞은 부천영화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김세윤 낮간지렵지만 유지선, 김영덕 두 프로그래머 두 분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스태프들에게 존경을 먼저 표하고 싶다. 김영덕 프로그래머는 스무살이 된 부천의 전반기를 담당하셨고, 유지선 프로그래머는 후반 10년을 함께 하셨다. 나는 아무 기여한 바 없는 무임승차다. 아무 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나를 '판타스틱'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봤다. 가령 부산, 전주영화제가 맑은 국이라면 부천영화제는 매운탕이다. 여기서 양념은 바로 다양한 장르다. 개성 넘치는 장르영화들이 주는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감칠맛! 부천영화제 팬들은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에 중독되어 왔다. 올해는 그걸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정돈하고 가이드를 마련했다. 패밀리 존, 블루, 레드, 금자구역으로 이어지는 섹션은 그 결과다.

김영덕 덧붙이자면 장르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좀 더 펼쳐지고 다양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 관습을 버리고 새로움, 그 중에서 일탈이라고 해도 좋을 과감함을 추구하는 게 부천의 색깔이다. 그런 점에서 패밀리 존은 나를 아찔한 계획이다. 어릴 때부터 '판타스틱'한 영화의 맛에 익숙해지도록 새

싹을 키우는 일일일까. (웃음)

유지선 부산이 종합선물세트, 전주가 독립대안을 기치로 내건다면 부천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관객친화적인 영화제다.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고르는 게 프로그래머의 기본이겠지만 부천은 조금 다르다. 부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관객이 즐겨워할 영화들을 툰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다. <변태가면2>, <도성풍운3> 같은 영화들을 어디서 보겠나. (웃음)

김세윤 개인적으로 <스위스 아미 맨>이 기억에 남는 성과다. 영화를 가져왔을 때 프로그래머로서 희열을 느꼈다. 영화가 최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 과정에서 얹힌 스토리가 각별하다. 비유하자면 낚시꾼의 손맛이랄까. 관객에게도 그런 짜릿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김세윤, 김영덕, 유지선 프로그래머(왼쪽부터).

나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계화복 각자의 덕질을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자 영화인들이 서로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 (김영덕)

안도감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기동차고 재미있는 영화들이 모인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세윤)

병맛 부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부천이기에 가능한 경험들이 있다. 올해는 B.I.G(BIFAN INDUSTRY GATHERING)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프로그램을 강화했으니 주목하시라. (유지선)



문영호 제공

FEATURE

Welcome to BiFan's 20th Extravaganza

Bigger, bolder, and better than ever before, BiFan's 20th anniversary is set to be a cinematic celebration of epic proportions, guaranteed to delight casual filmgoers and cineastes alike.

What's to be expected at BiFan 2016? Under the leadership of newly incumbent festival director Choi Yong-bae, Asia's top genre festival has streamlined categories, added further theaters and exhibition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films to be screened to a staggering 320 titles from 49 countries. Opening with a red carpet ceremony next to Bucheon City Hall, BiFan will screen quirky American comedy-drama Captain Fantastic. The film, which earned Matt Ross the Directing Prize prize in Un Certain Regar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earlier this year, centers around father Ben Cash who has unconventionally raised his children away from civilisation in the

forests of the Pacific Northwest, until a event forces them on a road trip. Then, over the course of the next eight days audiences will be spoilt for choice over what to see. There is the staple Bucheon Choice competition category, featuring 12 diverse films vying to secure the top prizes from the jury who consist of Korean actress Chang Mi-hee (Dream), Christian Jeune who operates as the Head of the Film Department at Cannes, actor Jung Jin-yeong (Ode To My Father), director/author/artist Khavn De La Cruz, and producer Garrick Dion (Whiplash). Bucheon Choice is now also joined by the Korean Fantastic program, created to support filmmakers from the peninsula, whose 10 films will be judged by Toronto Int. Film Festival programmer Giovanna Fulvi, Director of London East Asia Film Festival Hyejung Jeon, and Max Movie Chief Editor Park Hye Eun.

The special programs on offer are wonderfully varied and highlight the very best of cinema. 20 Years, 20 Favorites showcases the most popular films from BiFan's history, selected from an online poll. The legacy of one of the genuine all-time greats is celebrated through A Black Star that Fell to the Earth: A Tribute to David Bowie, screening four films dedicated to the truly inspirational artist who was tragically lost earlier this year. Gaumont: 120 Years of Cinema champions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France and Korea, while I Confess, Nakashoma Tetsuya exalts the Japanese maestro's incredible output, and Best of Asia provides audiences with the opportunity to watch some of the most popular recent films from across the continent. There really is something for everyone to see at BiFan this year.

Industry-wise, the launch of the newly founded B.I.G. (Bucheon Industry Gathering) runs from July 22~28 and will explore market trends in Asian cinema, while Th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operates from July 25~28 and hosts a genre film project market, providing a genuine lifeline for filmmakers seeking to achieve their vision. The festivities begin to wind down with the closing ceremony and highly anticipated Asian premier of animated zombie film Seoul Station on July 29. Director Yeon Sang-ho's macabre tale depicts the outbreak of a horrific virus in the Korean capital, and looks likely to be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K-films at the festival this year. Each day be sure to continue checking the BiFan dailies highlighting the great events transpiring throughout the festival. We wish you an exceptional BiFan experience!

Simon McEnteggart

REVIEW

"20 Years, 20 Favorites," a Culmination of Greatness

In celebration of 20th year of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iFan presents its special program "20 Years, 20 Favorites". The 20 chosen films highlight the fact that BiFan is primarily a genre film festival, and it is often hard to categorize these films as they reside in cross genre forms throwing you twists and turns that capture not only your attention but your imagination. Before each feature film in this program, one of seven of the best short films from BiFan's history will also screen. If you have never previously seen these works here's your chance to catch these classic genre benders. Donny Darko (Richard KELLY) and Save The Green Planet (JANG Jun-Hwan). Both films combine comedy, mystery and suspense, romance, science fiction and fantasy and have hit cult status. Sinister, gripping and disturbing best summarize the drama-horror films: Ring (NAKATA Hideo) Let The Right One In (Tomas ALFREDSON) and Martyrs (Pascal LAUGIER), the latter of which is recommended more for hardcore horror fans Thrillers mixing elements of dark comedy, mystery and suspense include plot twister Memento (Christopher NOLAN,) The Chaser (NA Hong-Jin) and American Psycho (Mary HARRON), while Bedevilled (JANG Chul-Soo) verges on being a horror. Films of a different ilk include Amelie of Montmartre (Jean-Pierre JEUNET) which blends romance, comedy and fantasy whilst Velvet Goldmine (Todd HAYNES) and Devdas (Sanjay Leela BHANSALI) offer a combination of art house performance, drama and musical genres.

Don't miss your chance to see some of the best films of the last 20 years all of which are highly praised and/or deservedly awarded.

Chocoshrek

INTERVIEW

BiFan Buzz



<Seoul Station>

As the 20th anniversary of BiFan prepares to open, what events are film professionals excited for?

"To begin with, I'm very curious to see the closing film Seoul Station, and I'm curious to see if people who liked Train To Busan (currently doing well on general release) show a strong interest in the film, which is a kind of prequel.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Neon Demon, Forest, and I hope to finally see The Horribly Slow Murderer With The Extremely Inefficient Weapon, which I hear is fantastic. And finally, it would be a real treat to see Georges Franju's classic Eyes Without A Face on the big screen!"

Darcy Paquet (film critic/ Director of Wildflower Film Awards Korea)

"The involvement of Chinese producers at this year's BiFan has me excited to meet them with the possibility to co-produce projects in the future. Socializing with like-minded filmmakers and cinephiles' is always fun.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opening and closing films, Captain Fantastic and Seoul Station."

David Redmond (Development Producer/ Creator of upcoming Jikji film project)

"BIFAN has always been a hive of creativity, fantastic filmmaker's international and local, and great for networking opportunities. Couple that with a few gory horrors to watch and the new B.I.G program,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creating some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some potential international co-productions."

David Oxenbridge (Lead Producer, WorkShed Productions)

Choco Shrek and Simon McEntegg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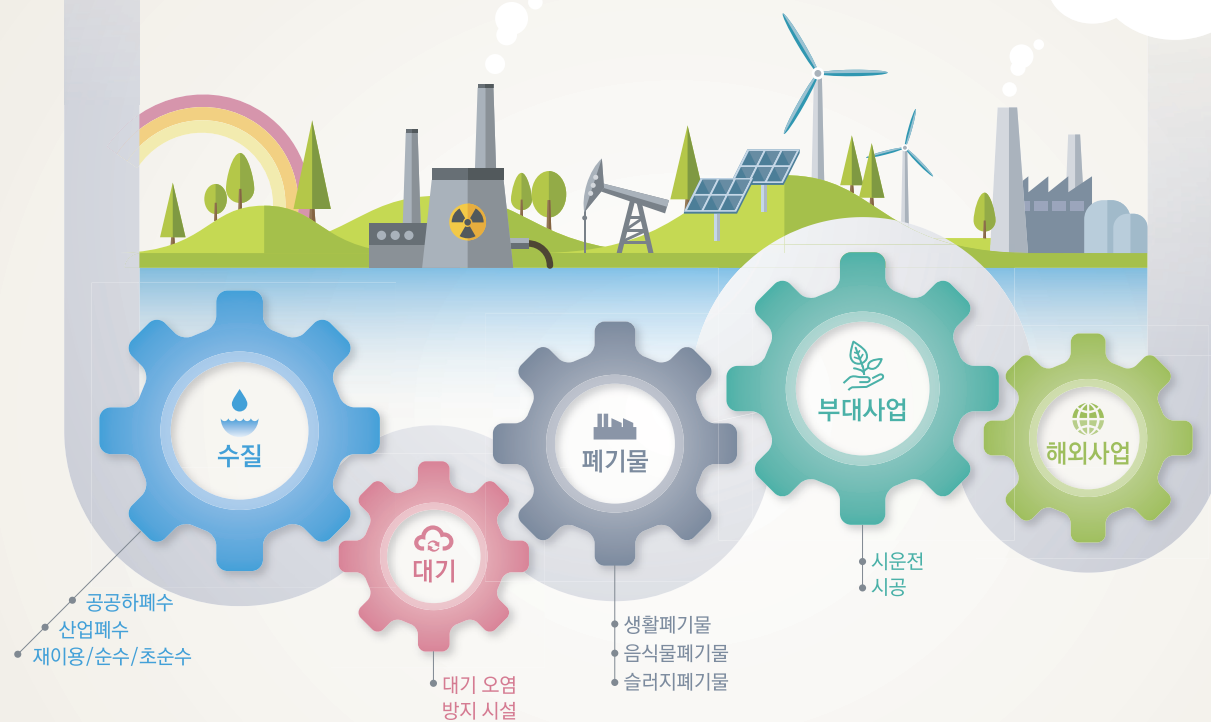
- 01 D-1은 우리 손에! 성공적인 영화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스태프들에게 박수를.
- 02 부천시청 앞 부스 설치로 바쁜 스태프들.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완공!
- 03 사무국의 혼한 풍경. 영화제 준비로
- 04 피곤이 쌓였을 법도 한데, 밝은 미소로 회의에 임하는 스태프들.
- 05 BIFAN 20주년을 맞아 신설된 시청 판타스틱 큐브 관, 쾌적한 공간, 70석 규모로 관객맞이 준비 OK.
- 06 올해 BIFAN 개막식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개막을 알리는 별문만큼, 관객의 기대치도 두둑!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막식 D-1, 개막식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바쁜 사람들을 만났다. 발로 뛰고, 체크하는 숨가쁜 하루. 긴장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이호준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권영탕



“하이엔텍은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후원합니다”

환경선진강국! 하이엔텍이 함께합니다



하이엔텍은 공공 하·폐수처리, 산업폐수, 정수 및 재이용 등의 수처리 사업과 대기오염방지, 폐자원 에너지화 등 환경시설 전문 O&M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istory

2015	1월 천진시발해환경공그룹합작 6월 ISO 14001 획득	2008	5월 엔지니어링 사업부문 시설 산업환경설비공사사업 면허등록 6월 주식회사 금호환경기술 사명 변경
2014	6월 토목공사사업 면허등록 11월 OHSAS 18001 획득	2003	6월 오수 처리시설관리업 면허등록 12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3	1월 중국 천진수처리 법인 설립 3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공공하수도)등록 6월 중국 환경보호시설 운영 면허증 획득 7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거) 등록	2002	2월 분뇨처리시설설계사업 면허등록
2011	11월 (주) LG전자 자회사 편입 주식회사하이엔텍 사명 변경	2001	11월 전기공사사업 면허등록 12월 철물공사사업 면허등록
2010	4월 주식회사대우엔텍 사명 변경	2000	3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면허등록 6월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등록
		1999	10월 주식회사삼은물지킴이 법인 설립

HiEntech
LG affiliated compan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행복의 날까지 ~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당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와도 NH농협은행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NH농협은행이 변함없이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100% 국내자본은행 |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